

15

미래를 생각하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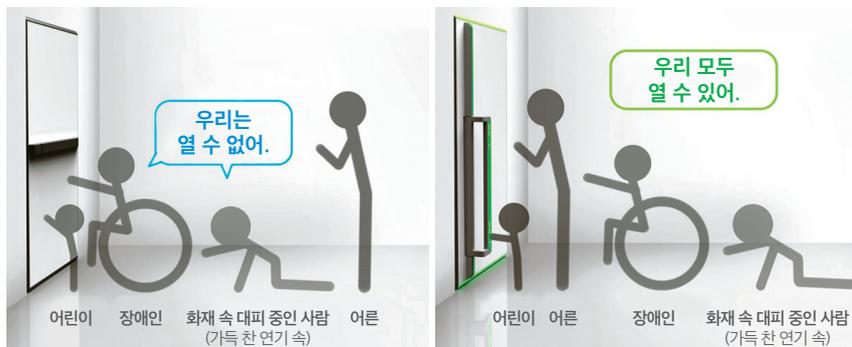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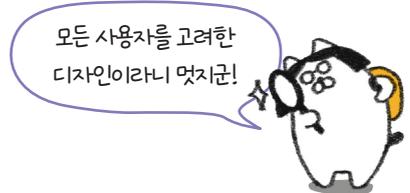
- 1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 2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Woha(싱가포르/건축 사무소) 싱가포르 장애인 사회 통합 센터 광장(2016년) 이 광장의 계단은 경사로로 대체되어 수동 휠체어나 자전거, 전동 스쿠터 사용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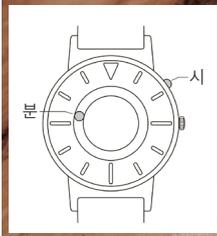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일반적·보편적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서비스 등에 적용한다.



▲ 첸(Chen, Guan-Yuan/중국/생년 미상) 출입문 디자인(디지털 이미지/2010년) 모든 사용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 대피를 할 때 문을 쉽게 찾고 열 수 있도록 설계된 출입문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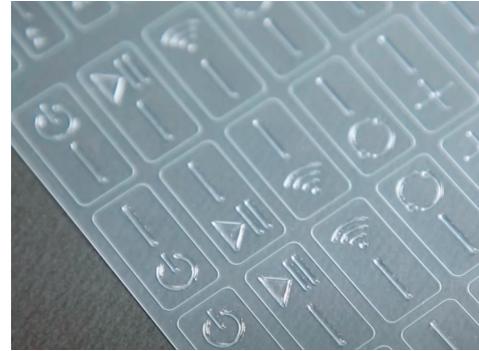
▲ N사(미국/스포츠 웨어 브랜드) 플라이이즈(2015년) 장애가 있는 선수의 의견을 듣고 개발한 N사의 '플라이이즈'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등 신발을 신고 벗기 어려운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신발이다.



나는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지!



◀ EONE(한국/시계 브랜드) 브래들리 시계(2015년) 시력과 상관없이 간단한 터치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세련된 시계 디자인이다.



▲ L사(한국) 점자 스티커(2022년) 시각 장애인 터치패드 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점자 스티커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열 가지 아이콘을 제공한다.



▲ 가스니에(Gasnier, Gwenole/프랑스/생년 미상) 기울어지는 세면대(2012년) 어른, 아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등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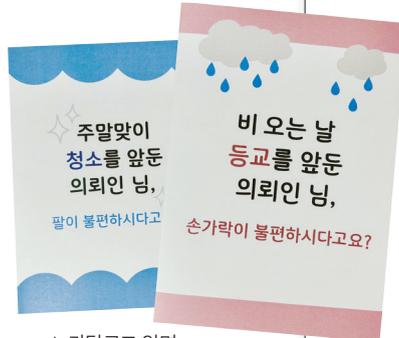
표현 활동

유니버설 디자인 카탈로그 만들기

표현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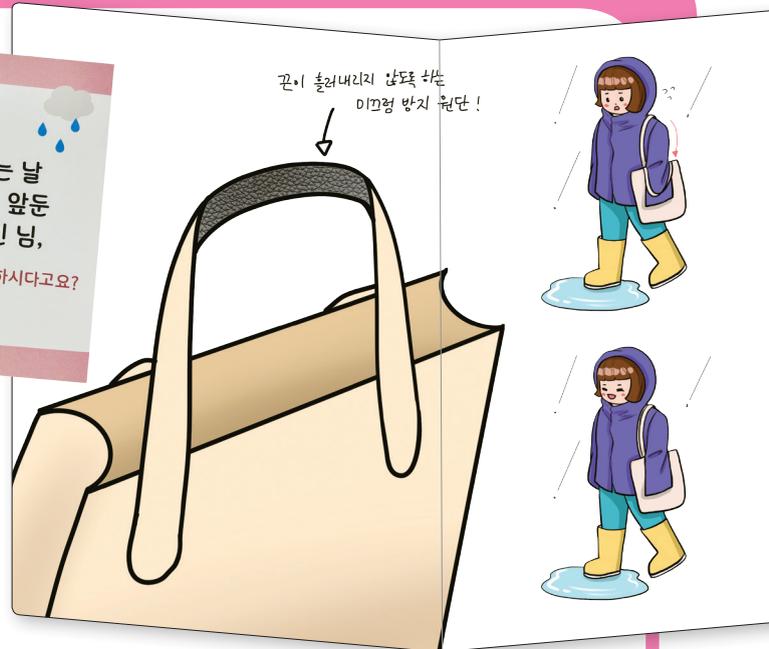
활동지, 종이, 색연필, 물감 등 채색 도구

1. 제비뽑기로 상황과 조건을 고른다.
2. 사용자의 동선과 행동을 상상하면서 불편한 점을 최대한 많이 찾는다.
3. 다양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한다.



▲ 카탈로그 앞면

▶ 카탈로그 펼친 면



▲ 김민비(학생 작품) (좌) 유니버설 디자인 카탈로그 접은 면, (우) 유니버설 디자인 카탈로그 펼친 면(디지털 작업 후 출력/21×29.7cm) 팔이 불편한 의뢰인을 위해 미끄럼 방지 원단으로 가방을 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가상 의뢰인을 위한 제품 카탈로그를 완성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인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디자인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재활용과 자연 분해가 가능한지, 악성 폐기물이 나오지는 않는지 등을 생각해 본다.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인을 함께 알아보자.

쓰레기의 끝, 다시 시작하다-업사이클링 디자인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더한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디자인이다.



이 의자는 원래 마스크였어!

▲ 김하늘(한국/1998~) 스택 앤 스택 (2020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많아진 일회용 페마스크로 스톨을 제작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 이혜선(한국/1985~) 손 등대(2016년) 버려진 물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여 해양 쓰레기로 만든 조명이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꼭 필요한 등대같이 버려진 물건도 다시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설계부터 제작과 폐기까지 초록빛으로-에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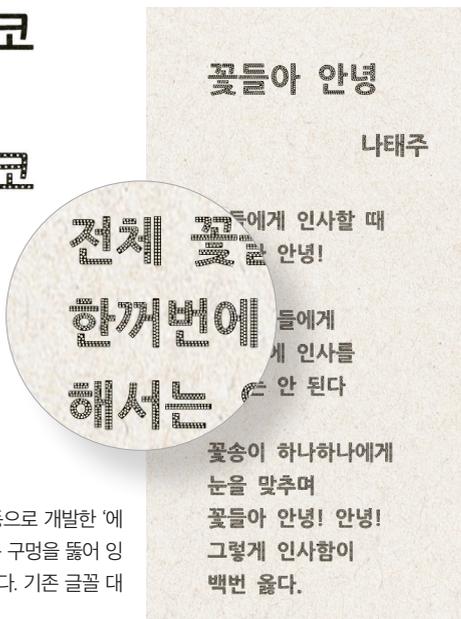
제품을 제작하고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기능과 품질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에코 디자인이라고 한다.

나눔고딕에코

나눔고딕으로 출력 시 잉크가 묻은 면적

나눔고딕에코

나눔고딕에코로 출력 시 잉크가 묻은 면적



▲ N사와 네덜란드 E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에코' 폰트이다. 기존 글꼴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잉크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 글꼴 대비 잉크가 최대 35% 절약된다.



라벨을 땅에 심자!



▲ 허틀리(Huttly, Ben/영국/생년 미상) 친환경 패키지(2011년) 100% 생분해성인 친환경 종이만을 사용하여 만든 친환경 패키지이다. 라벨에는 씨앗이 담겨 있어 그대로 땅에 심으면 종이는 썩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씨앗은 자라나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이 된다.

기술 착하게 사용하기-적정 기술 디자인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개선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모든 지역 사회에서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 덴코비치(Dankovich, Teri/미국/1981~) 마시는 책(2016년) 나노 입자 종이로 만든 '마시는 책'은 물을 살균하는 기능이 있다. 페이지를 찢어 여과기에 넣고 물을 부으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만들어진다.



▲ 영국 런던 남쪽 서던 지역에 조성된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마을 '베드제드' 마을 이름인 베드제드(BedZED)는 베딩턴 제로 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의 약자이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과 빛물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으며 하수 처리를 위해 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시스템을 갖추었다.



쓰레기의 재발견!

표현 재료

재활용품, 가위, 풀, 테이프, 채색 도구 등

- 1 하루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보고 어떻게 다른 물건으로 만들 수 있을지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다.
- 2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꼼꼼하게 스케치한다.
- 3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계획에 맞게 만든다.
- 4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유소현, 윤하은, 박가온(학생 작품) 청바지의 재발견(청바지, 혼합 재료) 작아지거나 해져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청바지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했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적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가?
-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가?

가장 궁극적인 불행은 이론이 실행을 앞질러 버리는 것이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

많은 미술 관련 직업 중 디자인 분야는 종류가 더욱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탄생 배경을 알아보고 디자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 한계를 넘어선 곡선의 여왕 건축 디자이너 하디드

여성이 이공계열의 학문을 공부하기 힘들었던 시절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하디드(Hadid, Dame Zaha/이라크->영국/1950~2016)는 어릴 적부터 바랐던 건축가의 꿈을 안고 런던으로 이주한 후 본격적으로 건축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건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건축물은 물이 흐르는 듯한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가 돋보이며 공간의 경계가 해체된 형태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2004년 능력을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현존하는 건축 분야의 상 중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프리즈커 상을 수상하였다.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한국/2007-2014년) DDP라 불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시와 컨퍼런스,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다.



▲ 헤이다르 알리에브 센터(아제르바이잔/2013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는 문화센터이다.



→ 인간미는 모든 영감의 원천, 디자이너 멘디니

멘디니(Mendini, Alessandro/이탈리아/1931~2019)는 합리적인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장식이나 유머를 활용해 현대 생활 속 일상적인 물건에 인간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을 전 세계적으로 촉발한 디자이너이다.

대표 작품으로는 친구이자 동료 디자이너인 안나 길리(Anna Gili)라는 인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와인 오프너인 안나 G이다. 멘디니는 어릴 적 할머니가 식탁에서 와인 따는 모습을 일종의 발레 의식처럼 기억한다고 하였다. 머리를 돌리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코르크 마개가 터지는 소리를 좋은 공연으로 생각한 것이다. 동료 디자이너인 안나가 기지개를 켜는 것을 보고, 유년 시절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려 만든 이 의미화된 작품은 멘디니의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 준다.



◀ 안나 G의 다양한 모델



▲ 안나 길리(Anna Gili)의 사진

→ 꿈을 실현한 비주얼 크리에이터 김민정 디자이너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김민정(한국/1990~)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시각화하고 싶어 디자이너가 되었고,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진행했다. 여러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정 디자이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1 안녕하세요. 김민정 디자이너님.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들이 보여 주고자 하는 모든 것, 곧 스타일링에서부터 앨범 디자인까지 거의 모든 비주얼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보통 그런 것을 이미지의 시각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디지털 기반의 아트 워크로 아티스트 앨범 전반을 작업하고, 콘서트나 다양한 행사의 비주얼도 디렉팅해 왔습니다.

Q2 소개를 들으니 디자인의 영역이 매우 넓고, 생소한 이름도 많네요.

프로젝트의 규모와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달라 집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비주얼 디렉터 등 여러 명칭이 있지만 결국은 '디자이너'라는 큰 틀 안에 있습니다.

Q3 여러 디자인 영역 중에서도 크리에이티브·비주얼 디렉터로서의 작업 과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티스트나 기획사에서 디렉팅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타이틀 곡의 성격이나 변신을 꾀하는 이미지 등 키(Key) 콘셉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앨범 이름을 정하거나 아티스트와 앨범의 특징점을 가장 잘 부각할 수 있는 스타일링과 프로덕션을 정합니다. 작업이 갖는 매력인 동시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여러 아티스트와 다양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작업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조사할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나 강조되는 단어를 집중하여 마인드맵을 그려 보죠. 아이디어는 평소 탐구하던 영역이나 흥미가 있던 분야의 지식을 뼈대 삼아 살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Q5 크리에이티브·비주얼 디렉터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크리에이티브·비주얼 디렉터는 타인의 시각화를 돕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읽는 감각과 프로그램 등 툴(Tool) 기반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람을 느낄 만한 관심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빠져 보고 방대한 경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목표치를 쌓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Q6 크리에이티브·비주얼 디렉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그 매력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타인을 돋보이게 하고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내 취향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구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선택을 모아 최고의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취향을 알아보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 점 또한 선택이자 소통이기에 저의 직업이 갖는 매력인 동시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어떤 작업물을 선보일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업계에 필요한 시각화 작업자로서 단순한 수단이 아닌 책임감 있게 협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에게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의 모든 것!]

디자인이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계획하고 제작하는 창조 활동이다. 디자인은 시각 정보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디자인의 조건

- **합목적성:** 기능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경제성:** 기술, 재료, 조립, 가공 등에서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디자인한다.
- **심미성:**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독창성:** 다른 제품과 구별되도록 차별성·주목성을 고려하여 감각적으로 디자인한다.

12 정보를 담은 디자인

시각 정보 전달 디자인이란 각종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이다. 책, 잡지, 광고물, 포스터, 영상 매체 등에 적용된다.

- **타이포그래피:** 글자가 주를 이루는 그래픽 디자인. 다양한 서체를 이용한 포스터 디자인에 많이 활용된다.
- **로고:**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글자를 짜 맞추어 제작한 것. 이미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CIP(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 기업 이미지 통합 전략.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여 모든 디자인 활동에 적용하는 디자인 경영 전략이다.
- **편집 디자인:** 잡지, 신문, 책 등 각종 출판물의 적절한 시각적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분야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이나 잡지, 책 등에서 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하여 설명해 주는 이미지이다.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활용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 **인포그래픽:**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도표나 차트, 아이콘, 이미지 등 그래픽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 서체 디자인 스튜디오 양장점의 전시회 포스터(2017년)

- **광고 디자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쇄물이나 텔레비전,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옥외 설치물 등으로 전달하는 대중 전달 매체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 광고와 소비자에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홍보하는 상업 광고로 나눌 수 있다.
- **캐릭터 디자인:**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의인화하여 친숙하게 표현한 것. 대중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고 문화, 상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포장 디자인:** 제품을 담는 용기를 디자인하는 것. 제품의 보관, 유통,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스위스의 한 거리에서 진행된 M사의 홍보 캠페인(2010년)

13 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제품 디자인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시장 조사를 하여 소비자층과 개발할 제품을 선정하고 목적과 유행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제품 디자인의 전개 과정



3D 모델링이란?

가상의 3차원 공간에 선, 면, 덩어리 형상을 기본으로 하는 입체적 물체를 만드는 것이다. x축, y축, z축의 3차원 수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3D 모델링은 공간 감각 능력이 중요하다.



▶ A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만든 캐릭터

14 내가 꿈꾸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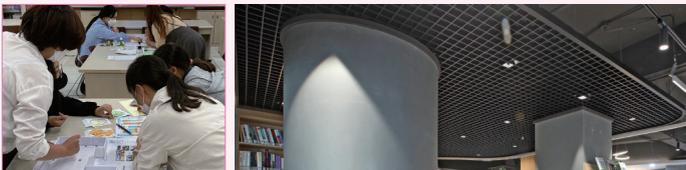
- 환경 디자인: 쾌적한 삶을 위하여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 도로, 광장, 정원 등 생활 주변의 장소를 설계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 실외 디자인: 건축물을 목적에 맞게 조형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다.

건축 양식 구분

- 모더니즘 건축 양식: 효율과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고 주로 장식에 없는 단순한 기하학 형태로 구성한다.
-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양식: 다원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생동감 넘치고 다양하고 재치 있는 외관을 갖는다.
- 신미래주의 건축 양식: 유선형 우주선 같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건축 양식이다.

르코르뷔지에의 '근대 건축 5원칙'

- 필로티: 건축 구조물을 지면에서 들어 올려 1층의 지표면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
 - 옥상 정원: 건축물 부지에 있던 녹지를 대체하기 위한 옥상 정원을 만든다.
 - 자유로운 평면: 필요에 따라 분할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든다.
 - 수평창: 파노라마적 광경을 넓히고 채광 효과가 좋은 '띠 유리창'을 활용한다.
 - 자유로운 파사드(입면): 기존의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건물의 입면이 자유롭게 개방적이다.
- 실내 디자인: 집, 사무실 등 실내 공간을 쓰임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 사업 중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새롭게 조성된 명지중학교 도서관(2022년)



15 미래를 생각하는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제공하는 디자인이다.
- 재활용 디자인(업사이클링 디자인):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디어나 기술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제품을 재탄생시키는 디자인이다.



◀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 E사의 제품. 월드컵 홍보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 아동복과 자투리 원단을 이용하여 만든 인형 등 소재를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활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켰다.

- 에코 디자인: 환경 요소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원료, 제작 과정, 사용 후 폐기까지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적정 기술 디자인: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디자인이다.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 최첨단 기술이 아닌 이미 보유한 기술에 아이디어를 더한 디자인이다.

파파네크의 강통 라디오

파파네크(Papanek Victor/오스트리아/1927~1998)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디자이너이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잦은 화산 폭발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많아지자 통신 기기의 필요성을 느낀 파파네크는 발리 여기저기에 버려진 강통을 활용하여 라디오를 만들었다. 종이, 왁스, 말린 소똥 등 불이 붙는 모든 것을 연료로 활용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 9센트 강통 라디오